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악마이야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자 악마가 나타나 부처님을 유혹했다는 불전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부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감한 군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너와 결전하리라. 나는 너의 군대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제1군은 애욕이다. 제2군은 의욕상실이고 제3군은 주림과 목마름이다. 제4군은 갈망이며 제5군은 비겁이다. 제6군은 공포이며 제7군은 의혹이다. 제8군은 분노이며 제9군은 슬픔이다. 그 위에 명예욕까지 갖추고 있다. 자아 어떠냐, 나는 너의 군대와 싸우겠노라.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고 있다"

이상에서 악마의 군대는 열 가지로 파악된다. 그런데 그 군대의 성격은 매우 이채롭다. 모두가 우리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애욕은 본능에 속하며 원초적인 속성이다. 종족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느끼게 되는, 그래서 약간은 맹목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처럼 맹목적인 행동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지배를 채워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철학의 공허함을 말하기도 한다. 설사 고상한 이론과 철학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것이 유애이다. 이것은 학식과 부귀의 유무를 떠난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라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되고 있는 악마의 군대는 우리들이 일상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상적인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마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한다. 악마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악마라 표현해서 친근감은 가지 않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너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존재와 욕망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뮤타 니카야>에서 5온이 악마라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일체의 사물은 5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을 비롯한 동물군은 특히 5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 느낌, 생각, 의지, 지적 분별 등으로 표현되는 5온은 각각 우리들을 집착하게 만든다. 전술한 열 가지를 통해 5감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그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결국 우리들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악마라 표현하는 것이다. 보통 사

부처님, 오온(五蘊)을 악마로 선언

해탈은 10가지 악마 심리상태 벗기

와 파괴의 본능이 잠재되어 우리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분노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혹은 자신과 연결된 안팎의 확산이 좌절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대로 사물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상태다. 그래서 욕망과 갈애, 분노, 저주, 슬픔 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욕 상실은 절망을 의미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아 자신의 의지나 의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나 길거리에서 잠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알콜중독자들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린치를 받고 절망에 허덕인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 죽음보다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러한 문제는 그들 자신이 해결하지 않는 한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기보다 부단한 자기개발을 강조하게 된다.

또한 비겁하다는 것과 공포는 무엇인가. 자신감의 결여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실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겁과 공포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생존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것을 유애(有愛)라 표현하기도 한다. 아무리 고상한 이론과 철학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허기진 배

람들은 대부분 악마의 군대에 의해 동요하거나 집착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출가 수행자들은 이들의 포로가 되거나 그것에 연민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잡아함경>을 보면 "동요하면 악마에게 결박당하고, 동요하지 않으면 해탈 한다"고 말한다. 특히 5온이 동요하면 악마의 포로가 된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주고 계신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5온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악마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부파불교시대가 되면 악마를 번뇌란 말로 바꾸어 놓게 된다. 번뇌는 klesa 혹은 kilesa란 말을 번역한 용어인데 '집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에 집착하는 것인가. 5온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번뇌 역시 인간이 있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마나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악마의 군대로 표현된 열 가지 요소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흔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표현되는 3독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악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불살생' 세 글자가 바로 선법

득도엔 수미산 넘을 '대분심' 필요

세수 80의 노구임에도 어떤 법회에서 초청해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든 찾아오면 격을 두지 않고 만나시는 황대선원 조실 성수(조계종 원로의원) 스님.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대마을 뒷산에 보금자리를 튼 황대선원에는 해제철임에도 불구하고 30여 재가자들이 정진하고 있었다. 20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정진의 힘을 얻어 효봉, 구산, 인곡, 청담, 성철 스님 등 당대의 쟁쟁한 선지식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성수스님의 회상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지금 절은 죽은 땅이야. 중은 고질병이 들었어. 새 땅에 새 인재를 길러야해."

나라와 인류를 구원할 '새끼 사자'를 키우는 데 여념이 없는 스님은 경남 산청의 한 폐교를 단장, 전문 참선도량으로 문을 여는데 여념이 없었다.

스님을 만나 한국 선불교의 문제점, 과제 등을 여쭈었다.

◆21세기에 선(禪)이 인류문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참선하라는 사람도 모르고 권하는가 하면, 참선하는 이도 그 의미는 고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아는 이가 흔치 않습니다. 범부의 탐진치 삼독만 무너지면, 그 시간부터 선입니다. 중생심으로 천년, 만년 앉아봐야 앉은뱅이 연습이 될지 몰라도 선하고는 거리가 십만 팔천리라. 선을 확실히 모르고 선을 하느니, 닦느니 하는 말은 구두선(口頭禪)이라 잘못하면 구업을 지었지, 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생사해탈법', '생사자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살생(不殺生)'이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 '죽지 말라'고 간곡히 설한 뜻입니다. 그러니 '불살생' 이 석자가 바로 선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불도는 왜 닦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닦고 무엇 때문에 불도를 닦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불도를 닦아야 합니다. 우물쭈물 미루다 보면 수만 겁이 지나도 불도와의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심을 하고 나면 '쇠뿔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대분심(大憤心)이 필요합니다. 불도는 익혀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를 일도양단하는 것입니다.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수미산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불도의 맛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원효 스님에 대해 특별한 존경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삶이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17살 되던해 고향 울주에서, 영웅호걸들은 도인들을 만나 도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원효스님 같은 도인을 만나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수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산문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동래 범어사에 도착했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있으면 나와 보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동산스님이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이 산좋고 물좋은 곳에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놀고 먹는데 전국민이 출가해서 절에서 놀고 먹는다면 누가 그 식량을 댈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면, 이 절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동산스님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네'하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통도사 조계암에 들어가 수도를 하다가 은사이신 성암스님을 만나 출가하게 됐고, 은사스님의 권유로 원효대사가 공부했던 함백산 토굴에 움막을 지어 10년동안 풀만 뜯어 먹으면서 수행했습니다. 원효대사 이후, 300년이전 진묵대사

삼독심

가까이

성 수 스

성수스님?

성수 스님은 8년 전 대나무가 유난히 많은 황석산 아래 토굴 한 채를 지었다. '큰스님이 계신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승속을 막론,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구도자들이 늘어났다. 스님 문하에서 참선하기를 청하는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 법당과 시민선원 등이 잇달아 들어섰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릇에

'새끼 사자' 기르는것 필

맞추어 참선을 닦을 수 있는 '도량'을 열겠다는 스님의 원력과 도 일치하는 불사였다.

출가이후 매일 새벽 2시반에 일어나 예불 및 참선하는 일과를 한번도 거르지 않은 조실 스님. 80 고령에도 법을 청하는 불자들을 위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는 스님의 자상하고도 말없는

가르침은 서운 회초 산청에 5 한 스님은 근성있는 각이다.

1923년 성수스님은 서 성암 스 년 부산 범 계사로 구 조계종 총 범어사 해 년 세계불 최) 한국 원장 등을 종 원로회 양 황석산 하고 있다

하루 첫말 한마디

첫 걸음은 무게있

매일 5분만이라도

뒤로는 나라와 중생을 살리는 도인들이 흔치 않요."

◆해인사에서 효봉스님 문하에서 공부 때 '천하의 만물은 무비선(無非禪)이오 만은 무비도(無非道)'라는 개오(開悟) 일성(聲)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깨닫기 전 '산과 물'과 깨닫고 난 후의 그것은 다른 이 있습니까?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분 불자 달마(색상지) ▷불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득심사

전 화 : 02)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합니다.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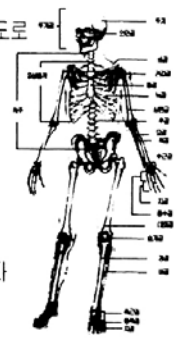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화엄기도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죄
병의 원인은 인연
따라 오는 법
고침도 인연 따라
낫는 법입니다.

■적용사항 :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문 의 : 031-336-3734 011-9711-3734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 325-8

해 원 사

고차원치유에너지 활용법 전수! 이제 전세계 비만인의 고민은 사라진다!!

비만완전탈출!! 지도자모집

세계최초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대 상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 해외이민 희망자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 · 녀
◆ 인기폭팔 비만 및 피부미용 샵 운영 예정자

교육과정
◆ 비만 및 난치병 조정법 6일간의 속효 조정법으로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 십이종 지능과 십이종 외식 구조학의 고난도 혁용합방법 전수
◆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이 없다

본학문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마르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상대를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 이후 부터 비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 하게 된다. 부분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랍다! 과연신기하다! 라고들 하나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현실임)
5. 감기도 암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6.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 치료불능의 괴질이 바생하더라도 본학문을 전수받은 당신은 능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서울지역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